

조선인민군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축하연설

영웅한 조선인민군 장병들!
조선인민군창건 일흔돐경축 열
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,
전투원동지들!

친애하는 평양시민들과 온 나
라 전체 인민들!

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
김일성동지께서 정규적혁명무력
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일흔
돐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전투부
대들의 장엄한 열병식을 진행하
게 됩니다.

지금으로부터 70년전 평양역
광장에서 거행되었던 정규무력
의 첫 열병식이 신생조선의 장
엄한 모습을 시위하였다면 오늘
의 열병식은 세계적인 군사강국
으로 발전된 강대한 조선민주주
의인민공화국의 위상을 과시하게
될 것입니다.

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스
러운 전투적행로를 감회깊이 돌
이켜보는 이 자리에서 나는 전
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가
슴속에 차넘치는 크나큰 감격
의 마음을 담아 주체적혁명무력
의 창건자, 건설자이신 위대한
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
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와
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.

그리고 혁명의 무장을 역세계
틀어쥐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
민의 해방을 위하여, 사회주의건
설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
없이 바친 항일혁명선열들과 인
민군렬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
표하며 건군절을 맞는 전쟁로병
들과 제대군인들, 전군의 장병들
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경례
를 보냅니다.

또한 소중한 안아키운 아들딸
들을 방선초소로 기꺼이 떠나보
내고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인민
군대의 전투력강화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
우선 마련하여 보내준 우리의 로동계급과
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에
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.

동지들!

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적혁명무력인
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2월 8일은 조선인
민혁명군을 창건하신 4월 25일과 함께 혁
명무력건설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
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날입니다.

변변한 군대가 없어 망국노의 비참한
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
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강한 민족군대를
가지는것은 일일천추 바라던 간절한 소망
이였습니다.

우리 인민이 품어온 이 세기적인 숙
망은 70년전 바로 오늘 위대한 수령
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성
취되었습니다.

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강력한
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건설의
필수적요구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군건설
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건군위업을 추진
하시여 3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주체형
의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
하시였습니다.

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백철



조선중앙통신

불굴의 혁명정신과 풍부한 투쟁경험, 령
활한 전법을 이어받은 명실공히 항일의
전통을 계승한 혁명군대입니다.

주체적인 정규군이 탄생함으로써 우리
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자체의 튼튼한
무력적담보를 가진 존엄높은 인민의 나
라로 당당히 등장하게 되었으며 세계 《최
강》을 자랑하는 제국주의침략군대를 타
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
룩할수 있었습니다.

우리 혁명무력의 력사적뿌리가 내린
1932년 4월 25일이 있어 강도 일제를 타
승하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
현할수 있었으며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
은 정규무력이 탄생한 1948년 2월 8일이
있음으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
한 승리가 있었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
전진도 이어올수 있었습니다.

조선인민군이 걸어온 력사적 전 로정
은 일촉즉발의 위협을 배태한 세계최대
의 화약고, 열점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긴
장상태와 강도높은 대결전을 동반하였습
니다.

조국보위, 혁명보위, 인민보위의 사명
에 충실한 우리 군대는 자위의 군사로
선과 일당백의 기치높이 적들의 모험적
인 도발책동들을 걸음마다 짓부시었으며

이 나날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
실수 있는 불패의 전투대로로 장성강화
되었습니다.

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
서 억척도 지원도 없이 싸워야 했던 가
장 존엄하고 어려운 시기에 인민군대는
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혁명의 제
일선에서 영웅적인 결사전을 벌리며 혁혁
한 공적을 세웠습니다.

반제군사전선과 부강조국건설의 최전
방에서 사회주의와 혁명을 보위하는 기
수, 역척의 지지점이 되어온 최정예혁명
강군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
의수호전에서 련전패승을 이룩하고 세계
적인 군사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되
였습니다.

동서고금의 그 어느 갈피에도 빈터우에
서 자력건군의 대업을 실현하고 장기간에
걸치는 최악의 도전과 봉쇄속에서 최강의
무력을 키운 기적은 찾아볼수 없으며 이
것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의
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
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부국강
병의 거대한 업적입니다.

인민군장병들!

70년전의 장엄했던 열병광장을 보무당
당히 떠나온 조선인민군은 조국과 인민

을 지키는 치렬한 격전장들마다
에 승리의 기발을 꽂으며 오늘에
이르렀습니다.

세계적인 강군으로 자라난 우
리 군대는 조선반도와 지역에서
전란의 참화를 막아내는 평화수
호의 역센 기둥이며 사회주의최
후승리를 향한 우리 인민의 대진
군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척후
대입니다.

지금 우리 인민은 백두의 넋
과 기상으로 분투하는 용감무쌍
한 인민의 군대를 커다란 자랑으
로 여기고있으며 나날이 강대해
지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위력에서
새힘과 용기를 얻고있습니다.

인민군대는 자기의 더운 피와
땀, 결사의 헌신으로 인민의 진
정어린 사랑과 신뢰를 쟁취하였
으며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원
호속에 인민과 일심일체를 이루
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
전구들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가
고있습니다.

이렇듯 위풍당당하고 위력막
강한 혁명군대, 인민의 군대를
가진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
랑이며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
운입니다.

나는 당신들과 같이 용감한 혁
명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의
중임을 맡고있는것을 무상의 영
광으로 생각합니다.

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
부, 전체 인민을 대표하여 영웅
적조선인민군창건 일흔돐을 맞이
한 전군의 장병들을 다시한번 열
렬히 축하하며 뜨거운 전투적인
사를 보냅니다.

열병부대 전투원들과 전체 인
민군장병들!

당신들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
대가 크고 인민들의 사랑이 극
진할수록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, 인민의
군대답게 성실한 복무와 헌신적투쟁으로
써 조국과 인민을 보위함에 만전을 기하
여야 합니다.

인민군대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
맞게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상응
한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사
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
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굳건히 담보해나
가야 합니다.

현시기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중심과업
은 전군김일성-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
높이 들고 당이 밝힌 군력강화의 전략
적로선과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
명군대로서의 완벽한 전투력을 갖추는것
입니다.

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
이 충실하여야 합니다.

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품에서 태어
나고 자라난 당의 군대이며 인민군대의
강대성의 원천은 당의 혁명사상과 령도
에 있습니다.

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에 운명의 피출
을 잇고 당중앙위원회를 무장으로 옹위
하는 제일결사대, 제일근위대가 되어야
합니다.

(2면으로 계속)